

커뮤니티(communality)를 위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
오 레 지 나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커뮤니티(communality)
	III. 지역기반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IV. 커뮤니티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 이 결과물은 2018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부교수

논문투고일 : 2018.10.27.

논문심사일 : 2018.11.17.

게재확정일 : 2018.12.01.

Direction of development of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Oh, Regina · Daegu Catholic University

As communality means certain sense or characteristics within certain geographical area or group that forms of a community,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lement for planning Munwha yesul kyoyuk (Cultural Arts Education).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can form a cultural network which connects the individuals with the area in which they live. It can be a medium that gives certain unique geographical and public qualities to the way of life of the people in the area.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should provide various artistic experiences for self-realization. Second,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should internalize in individuals the common sense of history, eco-system, and human relationship. Third,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should realize the certain competency of creating local culture which sustains and develops communality as well as competitiveness. Fourth,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ality should have sustainable merits that realize inter-relationships and networks among humans, nature, civilization. These merits form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his article approaches the principle of developing inter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through understanding communality, which addresses the problems of individuals and groups based on the sense of geographical community. As communality comes to root on peculiar culture in certain geographical area, creating communality demands the recognition of I, Now, and Here in terms of humanities as well as the practice of educational efforts.

<key words> integrated arts education, integrated arts education program, commu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주요어> 예술통합교육, 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특성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누구나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문화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일정 지역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서 그 사회의 제도나 관습에 영향을 받으며 주체적 존재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한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사회는 개인의 존재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실현해가는 터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간성 상실과 지역사회의 붕괴,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이웃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었으며,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간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져 각 개인의 삶의 질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끊임없이 지적된 서울의 문제를 치유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삶을 치유하고 사람관계를 복원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세계일보, 2012년 5월 3일)하였으며, 2012년 마을공동체 정책 도입 이후 5년간의 사업성과를 조명하는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마을이 답하다-마을공동체 성과풀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 경제효과와 일반주민의 참여에 따른 사회적 효과 및 공동체 성향상과 행복감 경험, 주도적 시민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CBS노컷뉴스, 2017년 5월 18일).’고 성과를 발표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도 2018년 업무계획에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를 위해 문화기초강화, 공정경쟁기회 보장, 지역균형발전, 생활문화의 거점 확충, 문화의 일상화, 기초문화생활 보장 등을 밝히고 있다. 개인 삶의 질은 사회 연대감과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초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인 노력들은 이제 문화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문화예술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이 사회문제 현상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지역문화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다양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인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치유하고 사회구

성원의 삶을 치유하고 사람관계를 복원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문화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예술교육은 격자화格子化된 학문적 지식들을 가로지르는 교과간의 통합 시도와 함께 지극히 세분화되어 학습되는 지식들의 창의적 조합”(김화숙 외 5인, 2015:129)을 위한 사고와 태도의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감각, 상징, 소통의 예술이 갖는 세 가지 공통요소를 근거로 통합될 수 있다”(김화숙 외 3인, 2012:107). 이러한 “예술통합은 예술가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를 서로 다른 자기, 타인, 공동체로 인식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향”(김화숙 외 3인, 2012:111)하고 있다.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고 존재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과 다양하게 관계 맺는 유의미한 장소이자 공동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자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지역기반의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 커뮤니티communality

“인간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성격적 특성(personality)을 가지듯이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과 다른 어떤 공동의식이나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커뮤니티라 한다”(정지용 외 3인, 2000:253).

지역사회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DAUM 국어사전). 이러한 지역사회는 유대의식을 가지고 상호교류하며 살아가는 인간집단으로 문화와 전통의 유사성이 높고 공동체가 강한 조직이다.

“지역사회의 구조는 크게 사적(private)영역과 공적(public)영역, 공동체적(communs)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토대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적 영역이고, 그 위에 공적영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적영역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변이 되는 공동체 영역이 가장 튼튼하고 점차 좁아지는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적영역은 극도로 비대해진 반면 공동체의 영역은 점차 붕괴되어져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태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회를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불균형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삶의 질이라든가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차철욱 외6인, 2011:7).

지역사회 안의 구성원 모두의 특성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유성 내지 공동성의 문화인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즉, 커뮤니티는 그 지역사회의 독특한 성격 내지 공통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기초로 한 올바른 가치문화 전승 및 지역사회문화의 창조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공동감 형성 및 사회적 공감대 조성”(정지용외 3인, 2000:253)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에서 말하는 ‘지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나 교육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동네 안에서 무형식의 배움이 생기고 이웃과 서로 관계하며 활동할 수 있는 관계의 터전을 말한다. ‘동네’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하이퍼 로컬hyper-local의 개념이다. 하이퍼 로컬이란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 맞춘 것’, ‘가장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며, ‘철저하게 시공간을 소지역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에서는 대상이 자신과 자신의 이웃 즉, ‘나-너’, ‘우리’ 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 관심사를 주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소지역성을 근간으로 접근성, 일상성, 관계성(네트워크)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추진되어지고 있다”(아르떼365, 2017년 7월 24일).

또한 “사회구조의 구성요소를 생존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주차적 생존수단(major-subsistence)과 부차적 생존수단(minor-subsistence)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차적 생존수단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체계의 기준을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차적 생존수단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될 수 없고, 사회적 가치가 축적될 수 없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없다. 이러한 부차적 생존수단은 그것이 가지는 속성상 로컬이나 커뮤니티 레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리티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희망과 비전을 찾기란 아주 어려울 것이다”(차철욱 외 6인, 2011:8).

III

지역기반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예술과 교육은 집단 내에서의 상호소통이 주요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장에서 예술은 예술 자체의 미적 가치보다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성되거나 요구되는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우선한다”(김화숙 외 5인, 2015:137). 지역기반 예술통합교육은 지역의 시간적, 공간적, 생태적, 관계적 의미를 예술이 갖는 공통요소를 근거로 통합하여 지역 근간의 정적 지식을 삶과 연결한 통합적 체험학습으로 이끄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2015년과 2018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기반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 경산시를 중심으로 기획, 진행되었다.

1. 지역 생태체험과 나눔을 위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하양이와 와촌이의 춤추는 여행’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과 와촌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기반의 생태의식을 예술체험을 통해 내면화하고자 기획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태적인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생태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산지역을 기반으로 생명, 역사,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곳을 생태지킴이로 설정하고 이를 여행의 형식으로 탐색하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의미화, 내면화 할 수 있는 생태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주제를 관찰하고 탐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 체험을 내면화하고 가치화 할 수 있는 예술통합프로그램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초등학교 55명을 대상으로 3시간씩 16차시로 진행되었다(오레지나, 2016:179-183).

표 1. ‘하양이와 와촌이의 춤추는 여행’ 프로그램의 구성

회차	구성영역	단계	핵심개념	교육주제	수업주제	
1~7	생태체험	관찰, 탐색, 경험	살림	생명	스트로마톨라이트	생태지킴이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역사	환성사	
				자연	금호강	
8~12	생태나눔	의미화, 내면화	다음	여행	춤추는 여행	생태 춤지도
어울림			관계	관계 디자인	춤추는 만다라	
			나눔	발표, 감상	전시 및 발표	

경산지역에 속한 대학의 예술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지역의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밴드를 형성하여 학습내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지역의 생태적 환경과 문화유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하게 표현,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2. 지역 역사의식 배경의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상상원정대 춤추는 역사여행을 떠나다!’는 지역기반형의 역사체험을 통해 탐구하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예술체험을 통해 다양한 표현방법을 탐색하고 나와 너, 나와 사물, 나와 우리, 역사적 사건과 나 등 다양한 관계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역사여행을 통해 유물, 유적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체험하는 인문학 중심의 지역 기반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구성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상상원정대 춤추는 역사여행을 떠나다!’ 프로그램의 구성

회차	교육주제	수업주제	활동내용
1~2	감각열기	여행을 떠나요	몸으로 떠나는 여행
3~6	압독국	압독국 상상여행	유적과 유물 탐구, 상상표현
7~10	화랑	화랑여행	화랑도, 수련무, 공동체 놀이
11~12	발표, 감상	함께하는 역사여행	전시, 발표, 부모와 함께하는 공동체 놀이

‘상상원정대 춤추는 역사여행을 떠나다!’는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통합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예술분야의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탐색 및 상상하게 하고 모든 체험을 몸의 감각을 통해서 종합하고 내면화하며 몸으로 사고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삶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문학 중심 지역기반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경산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 심신 수련조직이었던 화랑이 노래와 춤, 놀이로 심신을 수련하고 자기 정진에 힘썼던 풍류와 예술정신을 예술체험을 통해 내면화하여 지역기반의 역사적 유물 및 유적, 인물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성(경산)과 역사성에 대한 관계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나의 삶’과 연결하여 상상하고 내면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경산 중심의 역사체험을 통해 오랜 역사 속의 인물과 정신 그리고 문화가 교육참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기’라는 공간 속에 중첩되어 오늘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계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예술 감각을 개발하고 지역기반형의 역사체험을 통해 탐구하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산지역 대학의 예술교육전문가들 및 역사교육학자가 함께 기획하고 문화예술교육사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학부모님들과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역사를 알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하고 몸으로 표현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등 즐겁게 활동하면서 배우는 것, 역사여행을 하면서 활동으로 생각하며 배우는 점, 주제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 방식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기반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역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기획되어 지역의 인적, 물적, 환경적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적인 환경 및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의 역사적 사실, 사건, 유물, 유적, 생태적 환경을 통해 핵심가치인 역사성, 공간성, 생태성, 시간성 등을 내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과 초등학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연결하는 교육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지역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현장 밀착 마을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IV 커뮤넬리티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커뮤넬리티 예술통합교육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기초로 한 올바른 가치 문화 전승 및 지역사회문화의 창조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공감대 및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

로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문화에 대한 선택적 참여로 구축되고 그러한 문화 참여의 기억은 세상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감각 형성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문화 참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문화계승으로 표면화된다”(한혜리, 2013:31). “지역사회는 인간이 삶의 의미와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존재의 참된 가치를 구현하며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장소”(정지웅 외 3인, 2000:212)이므로 예술 체험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 아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생활방식을 주목하고 동반자로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자신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사, 문화, 생태, 현실적 쟁점 등에 관여하게 한다”(안인기, 2011:285). 학습자는 지역문화의 핵심가치인 지역의 역사성(역사적 사건과 공간,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 등을 통한 역사적 고취), 생명성(자연 생태, 생태적 공간, 천연기념물 등을 통한 생명의 가치 인식), 관계성(가족, 학교, 지역공동체 등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지역문화의 핵심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동체 문화는 삶의 과정이자 축적된 문화 지층으로 삶의 역사와 과정의 총체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문화는 모방과 전유로 물들어진 역사적 텍스트이자 공동체성이다.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성은 다름과 차이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황정옥, 2015:31). 공동체문화로서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 축적을 통해 형성, 계승, 발전되는 것이므로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삶에서 질이란 삶의 만족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오레지나, 2018:32). “문화는 구성원들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또한 구성원들의 삶과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창조자로서 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오레지나, 2018:33).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으로서의 자아와 공동체적, 사회적 자아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사회적 맥락을 연계시키는 상호적

학습을 실현해야”(최경희, 2013:73)하며, “개인과 사회가 통합된 공동체적 정신을 구현하는 장으로서 평생교육”(정지용 외 3인, 2000:213)을 지향해야 한다.

V 결론

커뮤니티communality는 지역사회의 공동의식이나 사회적 성격으로 지역에 속한 개인, 개인의 관계를 통해 확장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며 의식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으로 지역과 그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현대 생활을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생활문화에 지역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불어 넣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화예술교육이 결합되면서 학습자들에게 일상성, 관계성, 지속성, 자발성 등을 내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역사성, 생명성, 관계성 등 지역문화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지역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현장 밀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를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주도적 문화창조가 가능하도록 역량과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구현하는 평생교육으로의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나와 우리의 문제를 지역적 기반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communality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커뮤니티는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

와 지금, 여기의 문제를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화숙,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 (2015), **개정판 무용교육론**, 도서출판 한학문화.
- 김화숙, 전혜리, 한혜리, 오레지나 (2012), **Community Dance**, 한학문화.
- 안인기(2011), “미술의 사회참여: 공동체 미술교육의 실천과 의미”,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2권 5호**, 283-292.
- 오레지나(2016), “생태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7집 1호**, 173-187.
- _____ (2018), “무용교육의 사회적 맥락과 복지적 기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9집 3호**, 23-36.
- 정지웅, 이성우, 정득진, 고순철 (2000),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차철욱, 곽현근, 김선욱, 김용우, 김재현, 이귀원, 이상봉(2011), “지역공동체,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좌담회 자료집**, 3-43.
- 최경희(2013), “커뮤니티 아트로서 무용의 진화-개념 및 다원화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2호**, 67-84.
- 한혜리(2013), “문화 담론에서 무용 독해 방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2호**, 29-45.
- 황정욱(2015), “커뮤니티 댄스의 사회적 관여 방식에 나타난 연대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6집 4호**, 27-43.
- 세계일보, 2012.05.0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725억 지원
- 아르떼365, 2017. 07. 24,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정민룡
- CBS노컷뉴스, 2017.05.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1천만원 지원하면 5천6백만원 효과 발생 분석”